메시지 4

아가의 네 번째 단계 —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해 휘장 안에서 살도록 더 강하게 부름받음

성경: 아 6:4상, 13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 동산이 될 뿐 아니라(아 4:12-5:1, 6:2) 디르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보호처 곧 그 성소의 보호처가 된다(아 6:4상).

A. 왕은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라고 선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 아 6:4상.

B. 이스라엘의 왕도(王都)이며 왕궁이 있는 곳인 디르사(왕상 14:17, 15:21, 16:23)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 곧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며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의 보호처이다.

C.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엡 5:25-32, 비교 창 2:22)인데, 궁극적으로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16, 22).

Ⅱ. 그리스도께 동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번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연관되어) 건축되는 것이다 — 엡 3:8, 4:12-16.

A.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들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표징하는 휘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 히 10:19-20.

B.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찢어졌으나(마 27:51), 믿는 이들과 관련하여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C.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탄의 전달자를 통하여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게 하심으로써 그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셨다 — 고후 12:7.

D.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먼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요 3:6, 롬 8:10, 벧전 1:3),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의 낡은 타고난 요소를 점차 배출하시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신다(고후 3:18, 롬 8:2).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빌 3:21, 롬 8:23).

Ⅲ.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부름이 여전히 필요하다.

---

* 'sanctuary',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성전 전체를 의미함—역자 주

A. 그리스도의 연인이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만족을 얻은 후에, 주님은 자기 성찰에 갇혀 있는 그녀가 그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자아에서 나오도록 그녀를 첫 번째로 부르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다시 한번 부르셨다. 이제 주님은 그녀가 휘장 안에서 곧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완결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녀를 최종적으로 부르신다 — 비교 히 10:22.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영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즉 우리의 몸이 아직 변형되지 않은 한(롬 8:23, 빌 3:21), 우리는 여전히 휘장인 육체를 갖고 있다.
2. 우리가 휘장 안에, 곧 지성소 안에 살려면 매일 십자가의 처리를 체험함으로써 휘장을 통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전 15:31, 눅 9:23.
3.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소가 된다. 참술람미로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과 재생산이 된다 — 요일 5:20.
4. 지성소에 있는 궤 속에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놀라운 세 항목이 있다.
   a. 금항아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만나는 모든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출 16:32-34, 계 2:17상.
   b. 싹 난 막대기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 둘째 분은 부활이시다 — 민 17:1-11, 요 11:25.
   c. 율법의 돌판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을 가리킨다(롬 8:2, 10). 생명의 영의 법은 언약의 돌판으로 상징된다(출 25:16, 31:18, 신 10:1-5, 렘 31:33).
   d.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엡 4:6),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골 1:27, 고후 13:5),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롬 8:9)을 보아야 한다.
   e.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실지적인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부활이신 아들과 생명의 법이신 그 영을 만나게 된다.

B.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은 지성소 안에, 곧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살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로 누린다. 이것이 아가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Ⅳ.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이 되어 놀라운 술람미가 된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 아 6:13, 계 21:2, 9-10, 22:17상.

A. 솔로몬왕이 시골 사람이 되어 시골 소녀에게 구애함으로 그녀를 자신의 왕비, 자신의 복사판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에게 구애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으려고 하셨다 — 마 9:15, 계 19:7, 비교 시 45:1-3, 9, 13-14.

B.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애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 — 전 1:2, 아 1:1-8, 비교 고후 2:10, 출 33:11, 롬 8:4, 6, 고전 2:15.

C.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다. 이것은 이제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술람미는 춤추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히브리어로 '마하나임'임)에 비유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자신이 있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 불렀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군대'로 나누었다 — 아 6:13, 창 32:1-2.

1.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 창 32:1-2.
2. 야곱은 하나님의 두 군대인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무리 혹은 '두 군대'로 나누었다.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며 강한 증거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 창 32:7.
3.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약한 이들, 더 약한 이들,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11:29, 롬 9:16.
4.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기는 이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 고전 1:26-28, 고후 11:29, 12:9-10, 13:3-5, 계 3:8, 벧전 5:5, 신 32:30, 전 4:9-12, 롬 9:16, 16:20.
5. 두 군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이들임을 보여 주는 강한 증거라는 것이다 — 롬 8:37, 12:5, 신 32:30, 전 4:9-12.
6.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백성, 곧 땋은 머리로 상징된 것처럼(아 1:11) 그분께 복종하고,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으로 상징된 것처럼(10절)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하시다.
7.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롬 9:16, 21-23, 아 8:5-6.

© 2026 Living Stream Ministry